

배추 한포기 7000원...폭염·폭우에 농산물값 들쭉

ECONOMY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한달 만에 52% 상승 '금치' 도매가격과 격차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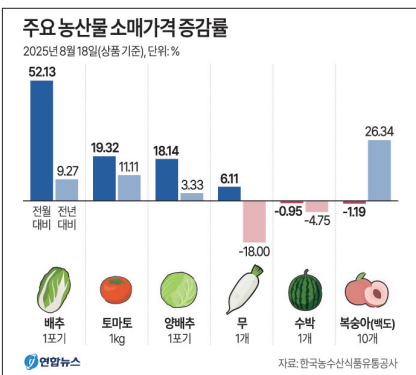
2~3주 지나야 안정...토마토 11%·복숭아 26% ↑

서민 밥상의 기본 채소인 배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연이은 폭염과 폭우가 생육을 저해하면서 한 포기 평균 소매가가 7000원을 넘어섰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 상품 소매 평균가는 706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

다 9.3% 비싸고 평년 대비 11% 높은 수준이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4000원대 중반이던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타며 52%나 뛰었다. 지난달 13일 6871원이던 배추는 하루 만에 7023원으로 뛰어올랐고, 이후 7000원대로 치솟았다.



통상 여름철에는 7월보다 8월 배춧값이 다소 오르지만 올해 상승 폭은 이례적

이다.

그러나 도매가격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배추 도매가는 4393원으로 지난해보다 23.6% 낮고, 평년보다도 5.7% 싸다. 강원 고랭지 배추 산지의 기온이 이달 중순 들어 내려가면서 출하량이 늘었고, 정부가 비축 물량을 방출한 영향이다.

농식품부는 “소매가격은 보통 2~3주 시차를 두고 도매가격 흐름을 따라간다”며 “날씨가 안정된다면 소매가도 곧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추 외 다른 채소·과일 가격도 요동치고 있다. 무는 개당 2588원으로 지난해보다 18% 저렴하지만, 양배추는 4526원으로 3.3% 올랐다.

토마토는 1kg당 5571원으로 11% 상승했고, 복숭아는 백도 상품 10개 기준 2만 2685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6% 비싸졌다. 한때 3만원을 넘었던 수박은 제철 막바지에 접어들며 2만9910원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10% 가까이 비싸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美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논란

한전·한전KPS 등 원전주 줄하락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의 세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19일 원전 관련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두산에너지빌리더는 전 거래일 대비 8.60% 내린 5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한국전력(-5.32%), 한전KPS(-8.70%), 한전기술(-8.04%)을 비롯해 한신기계(-6.75%), 우리기술(-7.60%) 등 원전 관련 종목 주가가 내렸다.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등 조건이 붙은 것으로 전날 알려진 영향으로 보인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너무 많은 것을 떼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에너지 수요 증가로 커지는 원전 시장 수출 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원전 밸류 체인 업체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서방 국가 입장에서 원전은 공급 부족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보다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원자력은 에너지 산업이면서 소수의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방산 산업”이라며 “이미 다자간, 개별 협정에서 한국은 원전 수출 시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불가피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협력을 통한 한국 원전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스토리는 변함없다”며 “성장 잠재력, 밸류에이션 등을 감안 시 톱픽(Top picks, 선호주) 순서는 한전기술, 한국전력, 두산에너지빌리더, 한전KPS”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경총, 노란봉투법 대응 특강

26일 DJ센터·대응전략·쟁점 분석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임원사 및 비회원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특강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노란봉투법 대응전략 모색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 주요 판례 및 기업 리스크 파악, 기업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회원사 예외사항 청취 및 의견 공유 등이다. 신청은 22일까지며 선착순 50명이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가능하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으로서서는 부담을 갖게 돼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동구 용연마을에 도시가스 공급 추진

해양에너지, 공사방법·노선 검토...내년 완료 계획

광주 동구 용연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해양에너지는 동구 용연마을 진입로 하천부 구간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방법 및 노선 검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해양에너지와 동구는 협약을 체결, 선교마을과 인근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선교마을 74세대에 대해 우선

공급을 완료, 개통식을 열었고, 내년에는 후방 지역인 용연마을 53세대 공급을 목표로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용연마을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 부재로 난방과 취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해양에너지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등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는 19일 본부에서 농협목우촌 광주지점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목우촌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대규모 판촉행사를 열었다.

농협 광주본부, 추석맞이 목우촌 신제품 판촉

닭가슴살 육포 시식행사 인기

농협 광주본부는 19일 본부에서 농협 목우촌 광주지점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목우촌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대규모 판촉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 장재영 NH농협은행 본부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과 유문재 농협목우촌 감사실장, 목우촌 광주지점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내방 고객과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목우촌 추석 선물세트와 다양한 가공식품을 소개했다. 또한 순국대산 원료육

으로 만든 간편식 사식 코너도 운영해 현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에도 처음 선보인 신제품 ‘생생육포’는 국내산 100% 닭가슴살을 사용하고 저온 숙성과 열풍 건조 공법을 거쳐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제품으로, 시식행사에 참여한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유문재 농협목우촌 감사실장은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목우촌 선물세트를 알리고 동시에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운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상큼애·오매향 브랜딩 라이브방송

여름과일 무화과·애플망고 최대 46% 할인 판매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전남 대표 여름과일인 무화과(상큼애)와 애플망고(오매향)를 라이브커머스 전용 플랫폼 ‘농협몰’과 ‘네이버쇼핑’에서 최대 46%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한 무화과는 무화과 최적재배환경인 신안 압해도 산으로 압해농협이 2018년부터 공동선별회를 조직해 재배기술교육, 공동선별, 상품화·유통까지 일관하고 있어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

또한 일조량이 풍부한 영광에서 재배된 애플망고는 주황빛 과육이 시각을 자극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미각을 매료시키기 충분해 소비자 선호가 대표적인 아열대과일이기도 하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전남 광역농산물브랜드 상큼애와 오매향을 알리기



농협 전남본부는 19일 본부에서 농협목우촌 광주지점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목우촌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대규모 판촉행사를 열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신세계 “합리적 가격 전략으로 고물가 돌파”

금값 상승에 10K·5K ‘가성비’ 주얼리제품 인기

과일 소분 판매·곰탕세트 등 집밥 소비자 공략

고물가 시대를 맞아 ㈜광주신세계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19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금을 이용한 주얼리 제품은 합량에 따라 순금을 의미하는 24K를 비롯해 18K, 14K 제품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금값이 상승하면서 합량을 줄인 10K 목걸이와 반지, 귀걸이 등이 주목받고 있다.

본관 3층에서 만날 수 있는 ‘로이드’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목우촌 선물세트를 알리고 동시에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운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로이드의 라이트 골드 제품군(5K·9K·10K)과 실버 제

품군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넘게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로이드에서 고객들이 많이 찾는 10K 커풀링의 경우 판매 가격이 타 브랜드의 유사 제품과 견줘 절반 수준이다.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광주신세계 로이드에서 10K 커풀링을 출시된 지 불과 한달만에 인기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외식물가에 부담을 느껴 집밥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들도 인기다.

본관 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곰탕 3종 세트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한우 설렁탕(450g)과 한우 나주식 곰탕(450g), 순살 갈비탕(450g)을 담은

다. 제대로 끓여낸 한우 사골육수에 한우를 듬뿍하게 썰어 담은 한우 설렁탕을 넉넉하게 담아 한팩이면 두 명이 한 끼를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게 했다.

폭염에 가격이 치솟은 수박 등 과일들도 소분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이고 간편함을 더했다.

하우스 수박은 4분의 1크기의 조각수박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고 1인 가구 등 더 작은 용량을 찾는 고객을 위해서는 조각수박 팩 제품도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0K 주얼리 등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품을 추천해드리다”며 “광주신세계는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개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은행, 포용금융 이용 고객에 보험료 지원

서민금융진흥원·DB생명과 재해 수술비 등 보장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도...서민경제 마중물 기대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DB생명보험(대표이사 김영만)과 함께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포용적 금융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민금융상품 신규 고객에게 보험료 전액 지원과 최대 100만 원 현금 지급 이벤트를 제공,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 비대면 채널을 통해 ‘KJB햇살론15I’를 신규로 이용하는 고객(매월 선착순 1000명)과 ‘Prime를라스론’을 신규로 이용하는 고객(매월 선착순 2000명)에게는 DB생명보험의 ‘생

활안심보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생활안심보험’은 재해장해급여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재해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5만원)과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50만원)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20만원)을 보장기간 내 횡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또한 9월 30일까지 ‘서민금융 ReBoot 100’ 이벤트를 진행한다. KJB햇살론15I, KJB햇살론뱅크, KJB햇살론유스, 최저 신용자특별보증대출을 신규로 이용하고 연체 없이 유지한 고객 가운데 30세 이상 소상공인·직장인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7명)을, 29세 이하 청년 중 추첨을 통해 30만 원(1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민금융상품 신규 고객에게 보험료 전액 지원과 최대 100만 원 현금 지급 이벤트를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와뱅크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보험 상품에 대한 상세 내용은 DB생명보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병일 은행장은 “서민들의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은행으로서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